





# 문화전당 예술극장 축제·공연 年 80→48개 축소

# 31사단 광주시 경계로 이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27일 광주 남구 광주 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서 토론회자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p><b>김선정</b>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예술감독</p> <p>전시·공연·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 가능한 아시아 자원을 발굴, 아시아문화를 연구하겠다</p>	 <p><b>이영철</b> 문화창조원 예술감독</p> <p>인문·예술·과학 융합된 문화콘텐츠를 창작, 제작하고 국제적 문화예술 담론을 형성하겠다</p>	 <p><b>김성희</b> 아시아예술극장 예술감독</p> <p>아시아 각국 예술단체 등과 공동창작, 작품 유통망을 구축해 아시아 공연예술 센터로 만들겠다</p>	 <p><b>김혁진</b> 어린이문화원 예술감독</p> <p>어린이 공연문화중심 거점, 어린이들이 창작에 참여하는 어린이 문화발전소로 만들겠다</p>
--	---	--	--

## ■ 2차 추진단 '성공적인 개관을 위한 전당 콘텐츠' 계획안

국립아시아 문화전당(문화전당) 내 아시아 예술극장의 공연·축제 프로그램(연간)이 예초 80여개에서 50여개로 크게 축소된다. 문화창조원 전시공간도 7개에서 3개로 줄었다.

예술극장 개관 프로그램이 반만하고 전시공간이 너무 많아 불거리 위주에 치우쳤다는 광주 문화계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대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예술극장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문화창조원의 경우 광주지역 문화산업발전을 위해 관련 기업, 연구기관과 연계된 창작, 제작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아시아문화개발원은 광주 남구 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차 콘텐츠 종합계획안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 발표된 내용은 지역사회의 여론을 대폭 수용하고 콘텐츠 실행계획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반만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아시아 예술극장 공연·축제 프로그램은 연간 48개 가량으로 축소됐다. 문화전당 개관축제 작품은 모두 30편, 시즌공연은 모두 18편으로 조정됐다. 시즌공연 '마스터전'에는 아시아 공연예술계 거장들의 작품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는 광주지역 우수작가(단체)들이 제작에 참여한 작품이 선보인다.

문화전당 개관 축제에는 해외 공연팀 리미니 프로토편과 광주시민이 제작한 공연과 대만, 태국, 싱가포르 예술가(단체)들이 제작한 국내외 공연물이 무대에 올려진다. 문화창조원의 3개 공간에는 LAB(labo-

## "불거리 편중 전시공간 줄어" 문화창조원 창작시스템 확대 지역 문화산업 연계 강화

창작소)을 기반으로 한 창작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지역 문화예술기관, 기업, 전문가들이 문화 콘텐츠 창작과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문화예술을 접목해 지역에 문화산업을 뿌리내리기 위한 방안이다.

민중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건물 등) 전시는 '열흘간의 나비떼'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광주민주화 항쟁 10일 동안의 극적인 사건을 기승전결 방식으로 풀어놓는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지원센터를 두고 아시아문화아

를 운영한다.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는 '동시대 문화'를 중심으로 아시아권 연구진들이 참여해 연구를 진행한다. 아시아문화연구소는 '다시 쓰는 아시아문화사', '아시아 과학과 건축' 등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다. 아시아문화 지원센터는 아시아 이야기·조형상징·의례·의식주·이주, 정착 등 5대 영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이들 자료는 문화전당 각 기관에서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원천소스로 활용된다.

어린이문화원은 놀이와 교육,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콘텐츠를 개발, 상설·기획 체험전을 통해 이를 전시한다. 자체개발한 어린이 문화교육 콘텐츠를 국내외 기관과 상호교환하고, 상업적으로 유통하는 기능도 한다. 어린이 문화원 문화체험관은 '신기한 아시아', '지혜로운 아시아', '멋있는 아시아' 공간으로 꾸러진다.

## "정부 빠지면 안돼" 문화전당 법인화 우려 목소리

### ■ 성공개관 위한 세미나 패널 토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과 아시아문화개발원이 27일 주최한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문화전당을 수익성을 추구하는 법인에 위탁하면 공공성을 상실하고 안정적인 재

원 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승관 동신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이날 추진단이 발표한 잠정 조직 구성안과 관련, "문화전당은 정부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경제성과 타당성의 문제가 있다"며 "정부 지원은 문화전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 부분"이라고 말했다.

송기희 광주문화방송 사업부 부국장은

"정부가 문화전당 전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서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 해야 한다"며 "정부가 문화전당에서 빠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전시·공연, 운영프로그램)가 지나치게 난해해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역 연구기관, 문화기관 등과 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훈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콘텐츠에서) 지나치게 전문영역의 예술성을 강조하다 보면 대중들의 참여가 어렵다"며 "광주시민 등 관람객을 객체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보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현중 국립광주박물관장은 "문화전당이 광주의 문화창조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지역 대학, 연구기관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문화전당 개관 이후의 체계적 운영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사령부·유격장 148만㎡

### 예비군 복구대대만 존치

광주 도심에 위치해 지역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육군 31사단의 이전이 본격화된다.

광주 31사단장은 2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복구 오치·삼각동 일원에 있는 31사단을 광주 경계 내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31사단 부지는 총 174만㎡로 사단사령부 128만㎡, 유격훈련장 19만9000㎡, 예비군 복구대대 26만1000㎡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훈련과 방호작전의 중요성이 있는 예비군 복구 대대는 존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전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장시장은 "이날 김 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로 31사단 이전을 합의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식문서를 국방부로 보냈다"며 "다만 그동안 추진했던 31사단의 광주 경계 밖 이전은 현실적으로 대체부지를 구하

는 것이 쉽지 않고, 군에서도 광주시를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 시 경계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현재 후보지 2곳을 검토 중이며 광주시에서 이전 예정지를 국방부 계획에 따라 국방부에 기부하고 이전 후 현재 부지를 광주 시가 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전비용은 2000억원~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는 올해 대체부지에 대한 군의 작전성 검토(6개월)를 거쳐 2015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하고 2018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31사단이 이전된 자리에는 전원형 주택, 예술인촌, 녹지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동안 떠돌았던 2019년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선수촌 조성 계획은 잘못 알려진 정보라고 강조했다.

31사단은 1955년부터 광주 시 북구 오치동과 삼각동 일대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광주 도심 팽창으로 이전 여론이 높다.

시는 또 이번 31사단 이전을 계기로 소용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군 공항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광산구 주민들 "군공항 부지를 공원으로"

### 이전부지 활용 타운홈터링

광주 광산구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는 27일 오후 광산구청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활용방안 타운홈터링'을 개최했다. 타운홈터링은 정책 결정권자가 유권자들을 초대, 정책이나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비공식적 공개 회의다. 이 자리에는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 군

공항 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전자투표를 통해 부지 활용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지역 주민 20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는 공원 조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어 소용터널 유지, 휴양림 조성, 테마형 주거단지 건설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광산구는 이 같은 주민들의 입장을 군공항 이전부지 활용 방안에 반영해주도록 광주시와 국방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 車보험료 14% ↑ ... 손해보험료 10% ↓

내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4%까지 인상된다. 상해보험 등 일반·장기 손해보험료는 평균 10% 인하나된다. <관련기사 17면>

보험사들이 일반 상해 보험료를 낮게 지급하면 고객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비를 나중에 떼가는 온라인 변액보험이 출시된다.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악(惡)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과 장애인 전용 연금 보험도 내달 중에 선보인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은 내달부터 이런 내용의 보험료 조정과 더불어 신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삼성화재, 동부화

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5개사들은 영업용과 업무용 보험료를 인상한다. 흥국화재와 더케이손해보험 등 중소형사와 온라인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린다. 지난 16일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4% 올린 삼성화재는 오는 31일부터 업무용 보험료도 3% 인상한다. 나머지 4개 대형 손보사도 내달 중에 영업용은 평균 10%, 업무용은 평균 3% 가량 자동차 보험료를 상향 조정한다.

일반·장기 손해보험료도 내달부터 평균 10% 내려간다. 이는 개정된 참조 위험률이 4월부터 적용되며 따른 것으로 장기손해보험료가 11%, 일반손해보험료가 5%, 상해보험료가 15% 가량 인하나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 老안시려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종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꼼꼼 미레가 보장됩니다.

##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전화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46번길 3

##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협이 바꿉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내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 광주원광신협

| 공동본점 | 227-4474  
| 금호지점 | 383-4474  
| 풍암지점 | 653-4474